

【논문】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송 대 현

【주제분류】 서양고대철학

【주요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국가(폴리스), 처자공유, 재산공유, 통일성

【요약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2권에서 2-6장에서 플라톤의 『국가』를 세 가지 주제를 통하여 비판한다. 통일성, 처자공유, 재산공유가 그것이다. 첫째, 플라톤의 과도한 통일성은 국가의 소멸을 의미하며, 국가의 지속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둘째, 처자공유는 ‘모두 처자를 공유한다’는 명제에서 ‘모두’의 의미는 배분적 의미와 집합적 의미 두 가지를 함축함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논리적 오류를 범했다. 또한 처자공유로 인하여 아이들은 내 자식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덜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셋째, 재산은 플라톤이 제안한 공동소유보다는, 소유는 사유로 하고, 사용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방식은 소유에 대한 즐거움을 유지시켜주고, 동료들에게 재산에 대한 관대함을 베풀 수 있는 즐거움을 확보해준다. 더 나아가,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사회악들은 재산의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못됨에 그 근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자 및 재산 공유라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는 사회악들을 제거할 수 없고, 법과 교육에 의해서 시민들의 품성을 변화시킬 때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비판에 대한 정당성을 과도하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공유 문제는 플라톤의 『국가』의 주된 주제가 아닌데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통해 플라톤을 비판하고, 플라톤의 ‘통일성’을 수적인 의미의 ‘하나’로 간주해서 비판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유범위와 관련해서도 플라톤은 공유의 범위를 모든 사람들이 아닌 수호자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 - 351-A00220]

계층에게만 적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플라톤의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을 플라톤의 『국가』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간주하는 태도에 기초한다.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은 공유 문제를 중심으로 수행된 비판으로 제한적 해석을 취할 때 그 비판이 유의미해질 것이다.

I. 서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2권에서 ‘최선 정체’(aristé politeia)에 대한 여러 제안들과 그것들의 문제점들(dyschereiai)을 검토한다.¹⁾ 여기에는 현존하는 정체들뿐만 아니라 선행 사상가의 이론들도 포함된다. 이들 중에서 플라톤에 대한 비판은 전체 논의의 중심에 위치한다. 오랜 동안 플라톤의 정치철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은 자주 정당하지 않으며 편파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다.²⁾ 하지만 필자는 이런 해석을 문제시함으로써 『정치학』 2권에서 전개된 플라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은 분명하게 플라톤의 대화편에 대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에 대한 독해는 표피적이고 『법률』은 읽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은 심각하게 의문시되어야 하고 재고될 필

-
- 1) 필자가 저본으로 이용한 원전 교정본과 우리말 번역은 다음과 같다.
 플라톤의 『국가』: Slings(2003), 박종현 번역(1997/2005).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Dreizehnter(1970), 천병희 번역(2009).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Bywater(1894), 강상진-김재홍-이창우 번역(2006).
 이들 중 우리말 번역본은 논의를 위해 약간 수정을 가해서 인용하고 언급했음을 밝혀둔다.
- 2) 이런 태도의 원조는 Proclus이며, 이런 태도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해석하는 학자들 중 가장 치밀하고 고전적인 연구는 Bornemann(1923)이다. 그런 이유로 필자를 포함해서 Stalley(1991), Simpson(1991), Mayhew(1997) 등이 그를 비판의 주된 과녁으로 삼는 것은 자연스럽다.

요가 있다고 본다.³⁾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2권에서 플라톤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정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거로 삼는 대화편은 들인데, 『국가』와 『법률』이다.⁴⁾ 하지만 주된 비판의 대상은 『국가』이며, 중심내용은 처자공유와 재산의 공동소유에 대한 것이다. 『국가』에 대한 비판은 양에서 뿐만 아니라 논증의 치밀성과 풍부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대한 검토를 능가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국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⁵⁾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작 『정치학』에서 행하고 있는 플라톤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일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문제는 다음 두 가지다.

(1) 플라톤의 『국가』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 2권에서 행한 비판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특색을 갖는가?

(2)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은, 플라톤의 『국가』에서 전개된 논변을 고려할 때, 설득력 있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1)은 『정치학』 2권 해당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고찰, (2)는 이런 고찰 내용을 『국가』의 논의, 주로 5권 논의와 비교 및 대조를

3) 플라톤의 정치철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에 관하여 연구된 20세기 이전 초기의 문헌은 Bornemann(1923), p.70-73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철학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까지 포함한 문헌정보는 Simpson(1991), p.99-10, 'Note. 1'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현 주제와 관련한 국내연구는 김준수(2001), 김우진(2011)이 있다. 전자는 소유문제, 후자는 처자공유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4) 『국가』에 대한 비판은 2권 1장-6장, 1260b27-1264b41, 『법률』에 대한 비판은 6장, 1265a1-1266a30에 전개되고 있다. 2권을 벗어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비판하는 곳은 4권 4장, 1290b38-1291a33과 5권 12장 1315b40-1316b27이 있다. 전자는 『국가』 2권, 후자는 『국가』 8권에 대한 비판이 전개된다.

5) 지면의 양을 고려하여 『법률』에 대한 비판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

필요로 하는 연구다. (1)의 작업이 대상으로 삼는 『정치학』 1-5장을 상세히 분석하고 정밀하게 접근할 경우, (2)의 문제에 대한 답은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은 (1)의 작업이다.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에 대한 성급한 독서와 이해 때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II. 『정치학』 2권의 논의 주제와 구조

아리스토텔레스는 2권의 탐구대상을 먼저 확정한다. 탐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탐구대상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탐구 대상은 여기서 *koinônia politikê*다. 필자가 표준번역으로 채택한 천병희 교수의 번역은, ‘국가 공동체’다. 하지만 이후 전개되는 논의의 중심주제가 *koinônia*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체’는 충분치 못한 번역어라는 인상을 준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Malcolm Schofield는 ‘sharing system’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함께 소유한다’는 의미를 포함시키려 한다.⁶⁾ *Koinônia politikê*는 중요한 자산들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춘 polis(국가)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탐구의 목적이 설정될 차례다. 2권의 탐구는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가?

“우리는 가능한 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정체(politeia) 중 가장 훌륭한 정체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기로 했기에, 다른 정체, 즉, 이른바 좋은 법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는 국가들 중 몇몇이 취하는 정체들과 몇몇 이윤가들에 의해 훌륭하다고 주장되고 생각되는 몇몇 정체들도 검토해야 한다.”(1260b27-32)

탐구의 목적은 ‘가장 훌륭한 정체’다. 이 어구에는 ‘가능한 한 자신이 바라는 대로(kat’ euchên)⁷⁾ 삶을 살 수 있는’이라는 일정한 단서

6) Schofield(2006), p.212.

가 제한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는 공동체란 모든 조건들, 예를 들면 지리적-경제적 조건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조건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이상적인 경우일 것이다.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최선의 정체에 관하여 탐구하는 것은 정치철학의 목적이다. 최선 정체와 이상국가의 조건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7권과 8권에서 전개한다. 하지만 이런 탐구보다 논리적으로 선차적인 탐구는 현실 속에서 훌륭한 법에 의해서 올바르게 통치된다고 얘기되는 국가들, 그리고 이론가나 사상가들이 훌륭한 정체라고 생각해서 제기한 정체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늘 탐구의 바탕으로 삼는 것은 *endoxa*, 즉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수용하는 의견들인데, 여기서도 사람들에게 의해서 훌륭하다고 얘기되고 믿어지는 정체들로부터 자신의 탐구를 수행하려 한다.⁸⁾ 정체들에 대한 이런 모든 탐구들은 비판적 정신 속에서 두 방향의 접근, 즉 이론적인 접근과 역사적 접근에 의하여 수행된다.⁹⁾ 2권 전체논의 구조는 이런 두 방향의 접근을 다음처럼 반영하고 있다.

- (1) 이론적인 접근: (a) 플라톤의 『국가』, 『법률』에 대한 비판(2장-6장)
(b) 팔레아스와 히포다모스가 제안한 정체에 대한 제시와 비판(7장-8장)
- (2) 역사적 접근: 스파르타, 크레테, 카르타고 정체에 대한 제시와 비판(9장-11장)

아리스토텔레스는 탐구의 대상, 탐구의 목적, 전체 논의구조를 설

7) Kat' euchên에 관해서는 Schütrumpf(1991), p.150을 참고할 것.

8) 정체들 간의 장단점, 특색들에 대한 상호비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속되는 연구 작업일 것이다. 2권 12장은 이런 작업을 구체화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12장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저술했을까 하는 진위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 속에 담긴 내용과 기획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9) Bertelli(1977), p.20-21

정한 후, 이제 논의의 구체적 출발점(archê)를 규정하려 한다. 어떤 연구의 최초 출발점은 당연히 다루려는 주제에 합목적적이며, 출발의 필연성을 지녀야 한다. 그럴 때 이것은 자연스러운, 본성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그것은 ‘공유’(공동소유)다. 국가 혹은 정치적 공동체(koinônia politikê)라는 말 속에 이미 공유(공동소유, koinônein)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론가들이 기획한 정체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를 중심 대화인물로 등장시켜서 공유 문제를 논의한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국가』를 선택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에 대한 비판은 국가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플라톤이 제시하는 ‘아름다운 나라’(kallipolis), ‘하나의 폴리스’(mia polis)를 구체화하기 위한 장치들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¹⁰⁾ 아름다운 나라는 구성원들이 한 사람처럼 된 나라이며, 이것은 처자와 재산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공유’는 이런 하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재산 및 처자공유가 실제 적용 가능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답변하려고 한다.

Ⅲ. 폴리스의 통일성(hen)에 대한 비판¹¹⁾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유’의 문제점(dyschereia)을 지적함으로써 플라톤이 구상하는 국가의 모델이 어떤 논리적 결함과 비현실적 기획인지를 증명하려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대한 비판을 전반적인 관점에서 우선 수행한다. 먼저 플라톤이 폴리스의 최대목적으로 삼는

10) 이와 연관된 주제는 본 논문의 결론 부분인 ‘비판의 정당성’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아울러 Polis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폴리스’, ‘국가’, ‘나라’ 등을 병용해서 사용했다.

11) 『국가』에서 통일성에 대한 논의는 5권 460d 이하를 참고할 것.

‘통일성’, 즉 ‘하나의 폴리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채택되어야 할 제도로 부인공유와 재산공유를 도입하는데, 그의 검토에 의하면 ‘통일성’은 이런 제도적 장치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¹²⁾ 그렇다면 처자공유와 재산공유에 의하여 폴리스의 통일성을 구현할 수 없다면, 다른 수단에 의하여 가능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에 대하여 여기서는 답하지 않고, ‘통일성’ 자체의 현실화 가능성을 문제시한다. 플라톤이 강조하는 통일성, 즉 ‘국가 전체가 가능한 한 하나로 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실현 불가능하다’(adynaton). 아리스토텔레스는 단호하게 플라톤의 통일성은 비현실적이며,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플라톤은 국가의 목적, 즉 통일성에 대한 정확한 의미 규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통일성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분하려면 그에 관한 의미규정이 필요한데,¹³⁾ 하지만 플라톤은 이것을 제공하지 않은 채 국가의 통일성만을 강변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비판한다.

공유의 전반적 문제 세 가지를 제기한 후,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은 소크라테스 주장의 기초 원리(hypothesis)를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이루어진다.¹⁴⁾ 이런 비판의 결론은 2장 말미 근처에 도달해서 명

12) ou phainetai symbainon ek tôn logôn(1261a12). 또한 5장 끝에서도 통일성이라는 잘못된 원리를 가정함으로써 소크라테스는 오류를 범했다고 그는 지적한다(1263b29-31)

13) 언급한 내용에 해당하는 원전 텍스트는 분명하지 않다. “Pos de dei dielein, ouden diôristai”(1261a14)에서 전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dielein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문장 속에 dielein의 목적어를 플라톤이 제안한 국가의 목적, 즉 통일성으로 보충해서 이해하면, 이런 목적에 잘 정향되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dielein)에 대하여 플라톤이 규정해준(diôristai) 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관점에서 Bertelli는 이 문장을 이분법적 나눔(diairesis)에 의해서 정의를 시도하는 방법론적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해석하면서 두 동사 dielein-diôristai를 연결시킨다[Bertelli(1977), 33-5].

14) 본 논문에서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등장인물 소크라테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장 끝에서(1261a6) ‘『국가』의 소크라테스처럼’(hosper en te Politeia te Platonos)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2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대화편 등장인물 소크라테스라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2권에서의 ‘소크라테스’가 역사적 소크라테스일 수도 있다는 Gallaher(2011)의 문제

시적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다음 두 가지다. “(1)국가는 본성적으로 통일체(단일체)가 아니며, (2)국가의 최고선이라고 불리는 것이 실은 국가를 파괴한다.”(1261b6-9) 이를 좀 더 자유롭게 정리하면, 국가는 본성적으로 다수의 사람(plêthos)으로 구성되며, 그러므로 국가가 통일성에 도달하면 그것은 국가의 사라짐이다. (1)은 좀 더 논리적이며 개념적 수준에, (2)는 현실적, 역사적 수준에서 논의된다. 소크라테스의 기본 주장을 이렇게 정식화한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본격적으로 플라톤의 통일성을 공략한다.¹⁵⁾ 통일성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통일적인 것은 개인이고, 그 다음은 가족, 그 다음은 국가다. 그리하여 만약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따라서 국가를 더욱 통일적으로 만든다면, 이런 국가는 가족이 되고, 결국은 개인으로 소급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결과는 국가의 해체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국가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체이기 때문이다.¹⁶⁾

“국가는 다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람들(ex eidei anthropôn)로 구성된다. 서로 같은 사람들로 국가가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1261a22-24)

아리스토텔레스는 양뿐만 아니라, 종류에 있어서도 여러 사람으로 국가가 구성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도 국가는 통일체로 인정되지만, 여기에 더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된 통일체라는 것이다(1261a29-30). 그런 이유로 국가는 군사동맹(summachia)이나 ethnos(연합체)와 다르다.¹⁷⁾ 군사동맹의 체결은 양쪽 군대 간의 결합, 즉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종류들 간의 양적인 결합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합체(ethnos)도 분명 국가가

제기는 크게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15) kaitoi-hôste의 논리적 연결사들에 의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16) Hen의 여러 의미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5권 6장을 참고할 것.

17) 『정치학』 1권, 2장, 1252b27 이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가정과 마을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마을들 간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아닌데, 그 이유는 이 연합체는 질적 차이를 갖는 요소들이 구성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그룹들이 구성원이기 때문이고, 결국 질이 아닌 양에 의해서 조직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1061a27-29).¹⁸⁾ 따라서 군사동맹과 연합체는 동일한 구성원들로 구성된 양적인 조직에 불과하다.¹⁹⁾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에 있어서 통일성과 자족성(*autarkeia*) 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것은 플라톤 방식의 과도한 통일성 추구는 국가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며, 국가에 있어서는 통일성보다는 자족성이 더 선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다.

18) 아리스토텔레스는 *ethnos*의 사례로 ‘아르카디아인들’을 언급한다. 하지만 아르카디아인의 예시는 전체 논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던져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와 군사동맹 간 차이를 국가와 *ethnos*의 차이로 이전한다. 군사동맹은 동일한 구성요소 간의 양적인 결합이지만 국가는 상이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듯이, 국가와 *ethnos* 간의 차이는 *ethnos*가 마을들의 단순결합이고 국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부분을 아르카디아인들은 여러 마을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살지 않고, 마을들의 연합체를 구성한다고 이해했다. 다른 한편, Weil(1960, p.270-271)는 여러 자료에 근거해서 ‘그 당시’ 아르카디아인들의 공동체는 독립된 폴리스들의 연합형태였다고 지적한다. Dittenberger와 Newman은 이 부분(1061a27-9)과 연관된 어려움을 논증맥락과 관련해서 그리고 통사론적 측면에서 길게 논의한다[Dittenberger(1874), p.1376-1384; Newman(1887), vol. 2, p.231-233)].

19) Bornemann은 1261a22, ou monon d' ek pleionôn로부터 1261b6, archousin archas를 본 내용에서 이탈된 부분(Abschweifung)으로 간주한다. 이런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결론적 언급으로 앞서 사용된 *anairein* 동사(1261a22)를 다시 1261b9에서 사용함으로써 상호호응을 이루도록 했다는 것이 Bornemann의 주장이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건대 적어도 군사동맹과 아르카디아 연합의 사례는 이전 부분의 논의와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만약 Bornemann의 주장을 수용한다하더라도 이탈 부분의 영역을 축소해야 설득력 있다. 또한 그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문헌학적 관점에서 유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프로클로스가 그의 주석서에서 이탈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는 전거뿐이다. 하지만 이런 전거는 빈약한 지반 위에 있다. 그 까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 관한 신플라톤주의적 성향의 주석들은 자주 자유롭게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루기 때문이다. 자세한 논의는 Bornemann(1923), p.96-97, 그리고 프로클로스의 주석서, *Procli diadochi in Platonis rem publicam commentarii*, vol.2, ed. by G. Kroll, 361을 참고할 것.

“이런 논의로부터 국가는 본성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통일체가 아니며, 국가의 최고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실은 국가를 파괴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 더 많이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면, 통일성은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1261b6-15)

자족성은 가정이 개인보다, 다시 가정보다 국가에서 더욱 잘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순서는 통일성의 역이다. 즉, 통일성의 정도는 개인, 가정, 국가의 순서이다. 그러므로 자족성과 통일성은 비대칭적 관계 속에 들어간다. 플라톤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국가에서 통일성의 추구를 대가로 자족성을 희생시킨 오류를 범한 것이다.²⁰⁾

한 국가가 자족적이라는 것은 식량, 주택(거주지), 의복, 등 생존에 필수적인 외적인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그 국가를 자족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자족적인 국가는 다른 것에 의존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자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것에 의존함 없음’, ‘다른 것의 수단이 되지 않음’에 대응할 것이다. 이런 자족성을 충족시키려면 당연히 국가 내에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다.²¹⁾ 다른 한편, 마을의 단순한 결합이 왜 국가가 될 수 없는지, 마을의 연합으로도 충분히 급방 언급한 의미의 자족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자족성을 마을들의 연합체에 부과하기를 거부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구성원들의 ‘잘 삶’(eu zen), ‘행복’(eudaimonia)을 구현할 때, 그 국가를 진정한 의미에서 자족적이라고 또한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²²⁾ 개인의 최고의 삶은 국가 안에서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사회적(politikon) 존재다. 이런 방식으로

20) 플라톤의 『국가』에서 ‘자족성’은 김남두(1993), p.29-30를 참고할 것.

21) 『정치학』 4권 4장, 1291a10 이하도 참고할 것.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최소 국가’의 전체 구성원에 전사계층, 재판업무 참여자들, 정치적 심의기구 담당자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22) Mayhew(1997), p.40-41.

규정된 자족성은 앞서 말한 자족성과 다른 의미를 함축한다. 그런데 플라톤이 주장하는 통일성은 국가의 첫 번째 자족성을 파괴할 것이고, 연이어서 두 번째 자족성에 대한 추구조차도 좌절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두 번째 자족성이 첫 번째 자족성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족성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²³⁾ 요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단일성과 자족성을 반비례적 관계로 설정할 경우, 국가의 자족성이 획득되기 위해서 국가 내에서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양식, 의복, 거처 등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가는 개인에게 여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²⁴⁾ 하지만 플라톤의 국가는 이런 요소들을 배제한 채 오로지 통일성만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그 안에 사는 시민들은 불행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IV. 처자 공유에 대한 비판

국가의 통일성을 획득하기 위한 플라톤의 제도적 장치는 두 가지 공유제다. 첫째는 처자공유, 둘째는 재산공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국가』에서 처자공유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불확실한 점을 논리-의미론적 맥락과 실제적 맥락을 오고가면서 비판한다. 특히 실제적 맥락은 과거 시점 측면에서 역사적 사례 존립성, 현재와 미래

23) 논의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8장(1099a24 이하)에서 펼쳐진 행복에 관한 포괄적 입장과 평행되게 전개된다. 행복에 관한 포괄론적 입장은 이창우(2002)를 참고할 것.

24) 여기서 자족성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는 과도하게 간략한 형태를 보인다. 9줄(1261b6-15) 정도만으로 논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정치학』의 구성적 불균형이 원인이라기보다는, 현 논의의 핵심은 통일성이고, 과도한 통일성은 자족성을 훼손시키고, 국가의 소멸로 소급된다는 것이 핵심논증이기 때문에, 통일성 논의에 자족성 논의를 부차적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의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주의적 성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처자공유 비판은 3-4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논의된다. (1) 플라톤의 국가는 통일성을 목적으로 삼는데, 처자공유가 이런 목적을 달성할 만한 조치가 될 수 있는가? (2) 처자공유제가 실제로 채택될 경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가?²⁵⁾ (1)은 3장에서 (2)는 4장에서 각각 논구된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국가의 최대 선으로 공유명제를 제시한다. 이에 대한 일차적인 대책은 처자공유이다. ‘모두 처자를 공유한다’고 할 때, ‘모두’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제 제기한다. 이 문장에 사용된 ‘모두’(pantes)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플라톤은 이것을 등한시한 채 사용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pantes는 ‘각자 모두’라는 의미를, 다음으로는 ‘함께 모두’라는 의미를 개별적으로 형성한다. 첫째를 배분적 의미, 후자를 집합적 의미라고 각각 명명할 수 있다.²⁶⁾ 첫째 의미, 즉 배분적 의미의 ‘모두’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동일한 아이를 자신의 아들, 동일한 여자를 자신의 아내라고 부르고, 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르는 경우”라고 예를 들어 설명한다(1261b20-24). 하지만 이런 의미를 함축한 ‘모두’는 국가의 통일성의 향상을 보증해주지 못한다. 국가의 통일성은 pantes의 두 번째 의미, 집합적 의미인 ‘모두 함께’를 개입시키는 ‘모두는 처자와 재산을 함께 공유한다’라고 말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플라톤이 배분적 의미로 pantes를 사용하여 처자공유를 주장한다면 논리적 오류(paralogismos)를 범한 것이다.²⁷⁾ 전제 명제에서 배분적 의미의 ‘모두’로부터 집합적 의미를 갖는 ‘모두’가 들어간 결론을 도출하는 했기 때문이다. 또한

25) 5권 내에서 2장과 3장 논의성격의 차이에 대해서는 Schütrumpf(1991), p.175를 참고.

26) 이 두 의미에 관하여 Bertelli(1977), p.41; Schütrumpf(1991), p.177-178; Stalley(1991), Simpson(1991), Saunders(1995)의 연구를 참고할 것.

27) Simpson(1991), p.108-109; Mayhew(1997), p.60-61.

건전하지 않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한 쟁론적 추론(eristikos syllogismos)에 해당한다(1261b30).²⁸⁾

만약 “모두(pantes)는 동일한 것을 ‘내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문장에서 주어 pantes를 배분적 의미로 이해하면, 그 국가의 구성원 모두 훌륭한 시민들이 되겠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하며, 집합적 의미로 간주하면, 구성원들의 마음의 일치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ouden homonoêtikon). 전자로 이해하면, 시민들 각자 모두는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로 삼고 이들과 친애(philia)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훌륭하고(kalos) 아름답지만,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한 일이다(ou' dynaton, 1261b31). 반면, 후자의 의미로 해석하면, Trevor Saunders가 잘 지적했듯이,²⁹⁾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다양한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의 집합체로 보는 까닭에 ‘마음의 일치’(homonoia)을 보증해주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친애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9권 6장에서 ‘마음의 일치는 친애적 태도나 감정’(1067a22)이라는 점을 밝힌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 간에 의견의 사회적 일치는 이해관계의 적정선 합의나 유명무실한 사이비 의견 통일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플라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판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비판에 플라톤이 제안한 프로그램이 끼치는 다른 해로움(blabê)를 덧붙인다. 먼저 일반적인 경험-심리적 원리를 정식화 한다.³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은 보살핌을 덜 받게 된다.”(1261b32-33)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처자공유에 적용하면, 모든 사람의 아들은 그 누구의 아들도 아니게 되며, 사람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이들을 보살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여 소홀히 대하는

28) Parallogismos에 관해서는 『변증론』 105a23 이하, eristikos syllogismos에 관해서는 『소피스트적 논박』165b25 이하를 참고할 것.

29) Saunders(1995) p.112. 하지만 그는 homonoia를 이해관계의 합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표명한다. 이런 의미로 homonoia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하여 분명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하는 논의를 전개한다. 물론 이 개념은 정치적 의미를 기본적으로 함축하다.

30) Schütrumpf(1991), p.178.

일이 비밀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다. 또한 처자공유로 인하여 플라톤의 나라에 사는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처하게 될 것이다.

“어떤 아이를 시민들이 저마다 ‘내 아들’이라고 말할 경우, 그를 전체의 분수(分數)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같은 소년이 ‘내 아들’도 되고 ‘누군가의 아들’도 되어, 천 명 또는 실수(實數)의 시민들 각자의 아들이 될 것이다.”(1262a1-5)

이렇게 진행된 논리의 끝은 플라톤이 구상한 나라에서 모두는 ‘내 아들’, ‘내 형제’, ‘내 친척’이라 부르게 될 것이지만, 실상 이런 나라에서 누군가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현행 체제에서 누군가의 사촌이 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는 역설적 언급으로 귀착된다.

지금까지 3장에서 행해진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비판은 의미론적이며 논리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다음 4장에서 펼쳐질 비판은 처자공유를 수용해서 국가에 적용할 경우, 현실 속에서 마주치게 될 부적절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은 논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3 가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부를 공유하는 제도 하에서 학대, 살인, 말다툼, 비방 등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비도덕적 행위들은 아는 사이보다 모르는 사이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³¹⁾ 또 일단 이런 사건이 발생한 후 서로 아는 사이라면 종교적 정화의식을 거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모른다면 정화의식을 행할 수 없다.

(2) 플라톤이 구상한 국가 안에서 젊은이들은 모든 시민의 아들이 된다. 연인관계가 남자 연장자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플라톤은 육체적 관계만을 금지하지만,³²⁾ 연애나 애정표시를 금지하는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다. 연인 관계인 이 둘은 부자 간, 형제 간 일 수 있는데, 이들이 서로 애정을 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에 해

31) 아리스토텔레스의 『여인들의 민회』, 635-40.

32) 『국가』 3권, 403 이하.

당한다.

(3) 처자공유제 하에서는 시민들 간의 친애가 약해질 것이다. 가족 간의 유대와 배려와 애정의 감정도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처자들인 수호자들보다는 피치자인 농민들 사이에 도입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피치자인 농민들에게서 상호 친애가 사라져 변혁을 시도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3 가지 비판은 처자공유가 현실화 될 경우 문제점들을 잘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문제들과 논리적 결합 때문에 처자공유는 지지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V. 재산공유에 대한 비판

아리스토텔레스는 5장에서 플라톤의 『국가』에서 제기된 재산공유에 대한 입장을 다룬다. 재산(ktêsis), 즉 토지, 가축, 집 등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사용하는지 하는 관점에서 개인과 공동, 다른 한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과 관련하는지 하는 관점에서 소유와 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로부터 네 선택지가 도출된다.

- (1) 재산을 공동 소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한다.
- (2) 재산을 공동 소유하면서 그 사용은 사적으로(개별적으로) 한다.³³⁾
- (3)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하지만 사용은 공동으로 한다.
- (4)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사적으로 사용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지막 경우를 논의에서 배제하고 언급조차 하지

33) ‘사적으로’와 ‘개별적으로’라는 단어를 필자는 상호교환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했다.

않는다.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Robert Mayhew는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1263b2-7의 논의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친구, 손님,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는 즐거움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이 경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배제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⁴⁾ 이런 내용은 나중에 논증될 사항이고, 2권 1장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국가(koinônia politikê)에서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선택지를 처음부터 배제했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차후 논의는 세 선택지, (1), (2), (3) 중 어떤 모델이 최선의 정체에 가장 적당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이런 검토는 처자 공유의 문제와 별도로 논해질 수 있다. 각 국가가 처자 소유는 개별적으로 하고 재산은 공동으로 하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논의방식에 있어서도 플라톤의 『국가』에서 제기된 처자공유 문제를 논할 때와는 다른 측면이 나타난다. 전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처자 공유를 단지 비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후자는 재산공유에 대하여 비판을 진행함과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유에 있어서는 사유를, 사용에 있어서는 공동 사용을 지지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동 소유를 지지하는 두 선택지, (1)과 (2)가 비판의 표적이 된다. 또한 플라톤의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것도 재산공유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는 재산공유의 문제점을 비판의 과녁으로 삼음으로써, 동시에 플라톤의 『국가』를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하게 된다.

사람들, 제한해서 말하자면, 자유민이 자신의 땅에서 노동하고 수확물을 얻게 된다면, 재산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재산공유는 개인의 노동량과 분배 및 소비의 양이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재산의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생활과 동반 여행할 때 사소하고 작은 일

34) Mayhew(1997), p.96. Miller(1991, p.237)의 주장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적 소유와 사적 사용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지지했기에 처음부터 선택지 (4)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로 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실례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재산공유는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한다.

“현재의³⁵⁾ 사유재산 제도가 습관과 올바른 법질서에 의해 개선된다면, 그것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제도, 즉 재산의 공유제와 사유제의 장점을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은 한 가지 점에서는 공유이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1263a22-27)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유제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렇다면 어떤 수단을 통하여 수정할 것인가? 그것은 습관과 법질서에 의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수정된 사유제, 즉 소유는 사유, 사용은 공동인 모델은 공유제와 사유제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적 소유는 상호간 재산 분쟁을 감소시키고,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을 더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은 더 잘 관리되고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논의를 전개했다면 흔히 말하는 ‘자신이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판단한다.’는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현대 경제사상가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적 소유를 도덕적 관점과 연결시킨다. 자신의 소유물을 친구와 공동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의 오랜 전통에서 유래하는 ‘친구의 재산은 공유이다’라는 유명한 속담의 정신과 잘 부합한다.³⁶⁾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공동 사용하는 모델은 스파르타를 비롯한 현재(nyn) 몇몇 국가에서 법의 전체 윤곽(hypogramenon)에 준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35) 아리스토텔레스는 2권에서 nyn(현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현재의 사실’을 강조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플라톤의 유토피아는 미래의 것이다. 미래의 것이 현재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면 누구도 원하지 않게 된다.

36) 이 속담은 플라톤에 의해서 자주 언급된다(『국가』 424a, 449c, 『뤼시스』 207c, 『파이드로스』 279c, 『법률』 739c). 고대 저자들이 이 속담을 언급하는 곳에 관한 정보는 Schütrumpf(1991), p.197의 목록을 볼 것.

앞에서 언급한 ‘습관’(품성, *êthos*)과 ‘올바른 법 체계’에 의해서 현재의 사유재산 제도가 향상된다면 공유제보다 더 유리할 것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습관’(품성)에 대하여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처럼 입법자의 고유한 기능(임무)을 제시한다.

“이상에서 밝혔듯이 재산은 개인이 소유하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행하게끔 하는 것이 입법자(*nomothetês*)의 고유한 기능이다.” (1263a38-40)

그렇다면 입법자는 어떻게 라케다이몬(스파르타)의 체제³⁷⁾, 즉 남의 노예나 말, 개들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체제를 소유한 국가를 구축할 수 있을까? 입법자는 올바른 법을 제정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윤리적 훌륭함(탁월함, 덕)을 습득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이런 논의의 연속성 안에서, 백커 판 한 페이지 뒤(1263b37-42)에 가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통일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플라톤이 라케다이몬이나 크레타가 채택한 철학, 습관, 법률 등에 의하지 않고 처자공유, 재산공유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시도한 점이 아주 이상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제도적 장치는 국가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대한 비판을 그가 애용하는 부사 *eti*(1263a40, ‘더 나아가’)를 이용하여 계속한다. 재산공유는 중요한 인간의 즐거움과 탁월함(미덕)을 제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사적 소유는 이들을 보장한다. 첫째는 사적 소유는 소유에 대한 즐거움을 유지시켜준다.

37)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2권에서 각 폴리스들의 사례들을 들어서 자신의 논증을 강화한다. 이것은 2권이 최선의 정체를 규정하기 위한 역사적이며 비교 정치학적 자료집의 성격을 다분히 갖기 때문이다. 또한 ‘라케다이몬’과 ‘스파르타(테)’와 관련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 사용에 관해서는 Vilatte(1995), 320-321을 참고할 것.

“더 나아가 무엇인가를 자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즐거움을 안겨준다. 각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헛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심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기심이 비난받는 것은 단순한 자기 사랑 때문이 아니라 지나친 자기 사랑 때문이다.”(1263a40-b3)

소유에 대한 즐거움은 올바른 자기애를 증진시킨다.³⁸⁾ 자기 노동과 노력이 투여되어서 자기의 소유가 된 재산에 대한 애착은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 중 하나다. 물론 이런 자기애(自己愛)의 과도한 표출 형태인 이기심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필요한 정도의 돈을 구하고 좋아하는 것과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수전노가 비난받는 것은 과도하게 돈을 좋아함으로써 돈의 사용에 있어서 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친구, 손님, 동료들에게 도움과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친애(philía)의 행위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적 소유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 둘이 재산공유제 하에서 박탈될 두 가지 즐거움이다.³⁹⁾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으로 사적 소유가 재산과 관련하여 관대함(eleutheriotês)이라는 인간으로서의 탁월함을 보증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재산의 사적 소유, 공동 사용으로부터 유래하는 세 번째 유익함이다. 여기에는 양극단을 피하여서 그 중간을 구하려는 중용의 원칙이 개입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까닭으로 『니코마코스의 윤리학』 4권에서 1장에서 ‘관대함(자유인다움, eleutheriotês)을 낭비와 인색이라는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한 ‘재물에 관련한 중용’으로 정의한다(1119b22-23). 따라서 “관대함이란 재물의 주고받음과 관련한 중용으로서, 관대한 사람이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마찬가지로, 마땅히

38) Stalley(1991), p.195.

39) 그렇다면 이런 즐거움들을 공유제 하에서는 가질 수 없다는 말인가? 만약 가질 수 있다하더라도 자신의 것을 많은 사람과 공동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즐거움은 감소될 것이다. 재산공유와 philía의 관계에 관해서는 Dobbs(1985), p.35-41을 참고할 것.

써야 할 일에, 마땅한 양만큼을 주거나 쓸 것이며, 그것도 즐겁게 쓸 것”(1120b27)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체 논의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재물과 관련하여 관대함을 가지려면 먼저 개별적으로 ‘자기 것’이 있어야 한다. 공동소유의 것을 자기의 뜻대로 재산권 행사하여 관대함을 갖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 공동 사용은 소유의 즐거움, 도움과 호의를 행사하는 즐거움, 관대함이라는 탁월함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논쟁적인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한다. 국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근원을 사유제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이론가가 플라톤이다.

“플라톤이 제의한 것과 같은 제도(공유제)는 매력적이고 인간미 넘치는(philanthropos)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제도에 관해 듣는 사람은 만인이 만인의 놀라운 친구가 되리라 믿고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데, 지금 국가에서 존재하는 악들, 이를테면 계약파기로 인한 상호 고소, 위증으로 인한 재판, 부자들에게 대한 아첨 등은 재산 사유제 때문이라는 말에 더욱 귀가 솔깃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악들은 재산 공유제를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못됨(악덕, mochteria)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2163b15-23)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악의 근원을 외형적인 제도의 관점에서가 아닌 인간의 mochteria에서 오는 것으로 진단한다. 그러면 인간의 mochteria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도 모르는 무지로부터 온다.⁴⁰⁾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방은 폴리스의 틀을 바꾸는 제도의 변화가 아닌, 앞서 언급했듯이, 입법자가 올바른 법을 세움으로써 법, 교육, 철학에 의해서 시민의 품성과 습관을 변화시킬 때 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교육에 의하여 국가를 건강하게 만들려는 선한 의도를 가졌던 플라톤의 오류는 다름 아닌 공유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혹자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40) 『니코마코스 윤리학』 7권 8장.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mochteria를 무절제와 관련시킨다.

현행 사유제 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악이 횡행하는 것을 당신도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곁으로 보기에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분쟁은 사유제에서 보다 공유제에서 더 빈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적 증거를 들어서 대답한다.⁴¹⁾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재산에 대하여 사적 소유, 공동사용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에서 플라톤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재산공유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적 소유의 장점으로서 소유의 즐거움, 친애의 행위, 관대함의 탁월성, 상대적으로 감소된 사회적 분쟁 등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시한다.⁴²⁾

VI. 맺는 말: 비판의 정당성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자신이 표명하려는 주장에 도달한다. 플라톤이 구상하는 최선의 정치는 국가 내에서 최대한으로 통일성을 확보했을 때 가능하다. 플라톤은 이런 통일성을 구현

41) 이런 언급은 현대 독자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사유제가 사회악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플라톤, 토마스 모어, 캄파넬라, 마르크스 등의 주장들을 차치하더라도, 불평등, 부정의와 사적 소유 간의 연관성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따라서 Susemihl & Hicks의 지적처럼, 이 부분은 파트너 쉽이 형성된 둘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이라기보다는 대규모의 인원들이 재산을 공유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Susemihl & Hicks(1894), p.238].

42) 이것들 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국가』의 문제점을 더 지적한다. 지면 관계상 간단히 여기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긴 시간 동안 플라톤이 제안한 제도는 주목받지 못했고, 실제로 도입되지 않은 것을 보면 훌륭한 제도가 아니다. (2)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민인데, 플라톤이 그들에게도 처자와 재산공유제를 적용하는지 불분명하다. (3) 만약 농민들에게 현행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사유제와 개별 가족제도를 도입하면, 한 국가 안에 두 국가가 현존하는 셈이다. 또 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행할지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하다.

하기 위해 처자공유와 재산공유의 제도를 도입한다. 하지만 이것의 결과는 원래 의도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국가의 소멸을 의미한다. 국가는 다양한 종류의 구성원들로 구성되는 자족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플라톤의 과도한 통일성(*lian henoun*)은 국가를 개인으로 소급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통일성은 합주(*sumphônia*)를 단선율(*homophônia*)로 만드는 것이고, 모든 리듬을 하나의 박자로 만드는 일과 같다.⁴³⁾ 그렇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의 통일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가 문제시하는 것은 플라톤 방식의 제도적 장치를 통한 통일성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플라톤이 오류를 범한 것은 논의의 원리로 잘못되게 설정한 ‘과도한 통일성’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공유주제 논제다.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논해지는 것은 정의(*dikaiosynê*), 철인치자인데, 이런 주제를 제쳐두고 부차적인 주제인 공유(*koinônia*) 논제를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통일성 논제다. 플라톤의 통일성을 전적으로 수적인 단일성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공유범위 논제다. 플라톤은 처자와 재산 공유를 수호자들에게 적용하고 생산자인 농민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내용을 혼동해서 공유를 농민에게도 적용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논제다.

공유주제 논제는 통일성과 공유범위 논제보다 거시적 논제다.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을 편협한 방식의 이해라고 간주하는 Susemihl-Hicks, Barker, Napolitano Valditarra, Saunders 등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논제를 공공연하게 혹은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다.⁴⁴⁾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논해지는 주제는 1-2권을 시작으로 해

43) 5장, 1263b34-36.

44)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이 정당한지 아닌지 문제와 관련해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들 외에도 필자가 아는 한 다음과 같다: Proclus, Oncken, Jowett, Newman, Salomon, Bertelli.

서 논의된 정의(dikaiosynê) 문제, 그리고 그 이후는 형상이론과 이에 대한 인식문제와 결부된 철인치자와 그의 교육이 문제다. 하지만 5권에서 도입되는 공유문제 또한 핵심 문제인 것은 확실하다. 아데이만토스는 다른 대화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소크라테스에게 공유(koinônia), 특히 처자공유의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는 그러니까 처자와 관련해서 ‘친구들의 것은 공동의 것’으로 될 것이라는 것임이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 그 공유(koinônia)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 저희는 아마도 선생님께서 아들의 출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낳을 것이며, 일단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될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자공유의 문제 전반에 대해 언급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서 줄곧 기다려 왔으니까요. 그것(처자공유)이 옳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옳지 못하게 이루어지는가가 나라의 조직형태(politeia)에 중대하고도 전반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449c-d)

처자공유 문제는 플라톤이 구상하는 ‘국가의 조직형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기에, 대화 상대자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이것에 대한 논의를 촉구한다. 이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처자공유의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솔직히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가기를 원했다고 자백하면서, 처자공유에 대한 논의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 어려움은 두 가지인데, 처자공유가 실현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최선인지 하는 문제라고 소크라테스는 밝힌다. 이렇게 시작된 논의는 첫 번째 파도를 지나서, 두 번째 파도에서 처자공유 문제, 이에 따른 결혼 및 출산 등이 논의된다. 이런 논의과정 속에서 보듯 koinônia는 중심개념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공유’라는 부차적인 주제를 가지고 플라톤을 비판했다는 교설은 심각하게 의문시되어야 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국가』를 철저하게 『정치학』 2권의 주제에 맞추어서 다루고 있다. 본 논문 2장에서 다루었듯이, 『정

이런 노선에 있는 학자들의 목록과 간단한 언명들은 Dobbs(1985, p.30, note 3), Simpson(1991, p.99, note 1), Calabi(2000, p.424, note 7)를 참고할 것.

치학』 2권은 이론가들이 제안한 정체와 현 정체들 중 훌륭하다고 말해지는 정체들에 대한 탐구다. Koinônia politikê(국가 공동체)에서 그 정체에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공유와 사유의 문제다. 이 문제를 중심에 놓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국가』의 일부분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지, 플라톤 철학 전체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정치학』 2권의 자연스런 논의의 출발점은 공유였고, 이런 연유로 공유의 문제를 중심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비판한 것이다. 만약 다른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주제에 관한 비판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플라톤의 형상이론을 중점적으로 비판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다. 물론, 비판이라는 방법의 성격이 늘 그렇듯, 플라톤 입장에서 보면 한두 가지 부분을 과장되게 강조해서 자신을 비판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대목들도 있다. 『정치학』 2권에서 그리고 더 넓게 『정치학』 전체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른 이론가들의 입장과 다른 정체들에 관하여 비판하는 태도와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비판을 비교하면 특별히 플라톤에 대하여 편파적이라고 간주할 이유는 없는 듯하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는 2권에서 플라톤의 『국가』를 심도 있게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것은 적어도 분명하다. 그 논의의 양과 폭은 다른 이론가들이나 다른 정체들에 대한 논의를 압도한다.⁴⁵⁾ 좀 더 많은 양과 폭넓은 비판이 반드시 더 편파적이거나 더 잘못된 비판이라고 단죄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처자 및 재산의 공유 문제는 그 당시(기원전 4-5세기) 철학자들의 핵심 논란거리 중 하나였을 것이다.⁴⁶⁾ 회화화된 형태로 표현되긴 했지만, 공유 문제가 그 시대의 중요한 논쟁점이라는 것을 아리스토파네스의 『여인들의 민회』(362년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주장되는 여성들의 통치권력, 처자 및 재산공유 등의 내용은 『국가』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고, 특히 512-727 줄 사이에서 아리스토파

45) 아리스토텔레스는 팔레아스와 히포다모스가 제안한 정체에 대하여 7장, 8장 한 장씩 다룬다.

46) Dawson(1992), p.37-40.

네스는 공유에 관한 정치적 단어를 정교하게 사용한다. 이 작품은 아마도 『국가』의 중요 부분을 저술한 시기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초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저작 간의 정확한 관계설정을 괄호에 넣고 보더라도, 처자와 재산공유에 관한 문제제기의 방향 등은 두 저자가 공유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⁴⁷⁾ 더 나아가, 이 작품에서 처자공유 부분(512-727)이 웃음을 유발시키려는 극적 장치로 삽입된 것일 수 있다 하더라도, 웃음을 촉발시킬 수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보면 이미 이런 문제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아테네 사회의 침체한 갈등 요소였다는 것의 증거일 수 있다. 이런 문제 상황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정치철학에서 처자와 재산공유를 다루었으며, 그것이 『국가』 4-5권과 『정치학』 2권의 내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이외는 다른 측면에서 Mario Vegetti는 『정치학』 2권의 플라톤 비판을 해석하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국가』에 관한 비판 부분을 그 당시 아카데미아 학원 내에 있었던 『국가』에 관한 토론을 기초로 해서 작성한 것이고, 플라톤을 비판한 내용은 그 토론이 반영된 논의라는 것이다.⁴⁸⁾ 요컨대 공유 문제는 그 당시 철학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거리였으며, Vegetti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아카데미아 학원에서도 『국가』의 공유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일 만큼 핫이슈였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공유 문제가 『국가』에서 중요 주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두 번째는 통일성 논제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kallipolis의 규정과 실현이라 할 수 있다. Kallipolis를 실현하기 위해

47) 커퍼드는 『소피스트 운동』(김남두 번역, 262-3쪽)에서 플라톤이 『국가』를 저술할 때 아리스토파네스의 이 희곡을 읽었고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간주한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영향에 관해서는 Dawson(1992, p.37), Saunders(1995, p.105), Mayhew(1997, p.10), Schofield(2006, p.228-9)를 참고할 것.

48) Vegetti(2002) 188-89. 하지만 필자는 『국가』와 『법률』 간의 관계,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에 대한 비판이 『법률』에 포함되었다는 Vegetti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 플라톤의 두 대화편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2권의 관계는 Bodéüs(1985, p.369-370)를 참고할 것.

서는 시민들이 마치 한 몸처럼 되는 *mia polis*가 되어야 한다. 통일성이 구현된 *mia polis*는 시민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통일성과 공유(*koinônia*)는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최대 통일성이 국가의 목적이요 최대선(461a-b)이라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처자와 재산 공유뿐만 아니라 감정의 공유, 심리적 반응의 공유(464d)도 국가의 통일성을 위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다. 이미 본 논문 3장에서 확인했듯이, 플라톤이 『국가』에서 주장하는 이런 통일성은 파괴적 단일성으로 귀착된다. 그래서 그의 계획대로 하면, 국가의 통일성은 국가의 소멸이 된다. Ernst Bornemann은 플라톤의 통일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에 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강하게 표명한다. 그의 주장의 주된 근거는 플라톤의 통일성은 내적인 통일성이며, 마음의 일치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순전히 수적인 의미로’(in rein numerischem Sinne)로만 간주했다는 것이다.⁴⁹⁾ 이런 관점은 Proclus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현재는 Saunders가 세련된 형태로 이런 관점을 지지한다.⁵⁰⁾ 그렇다면 1261b32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스스로 ‘마음의 일치’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과 1262b7 이하에서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통일성을 특히 찬양하는데, 그것은 친애(*philia*)의 선물인 것 같고 그(소크라테스)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두 구절을 Bornemann은 *sophistische Spielerei*로 취급한다.⁵¹⁾ 그의 이런 해석은 도리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의 진의를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통일성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Bornemann이 언급한 위 두 구절에서 드러나고, 더 나아가 아리

49) Bornemann(1923), p.128.

50) 이들 중에서 가장 상세하며 체계적으로 논지를 전개한 학자는 Bornemann(1923)이고, 현재는 Saunders(rev. trans. Sinclair, 1992; 1995)다. 따라서 이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Proclus, ed. Kroll, 361-362; Saunders(1992, p.103; 1995, p.110-111) 그리고 앞 각주 (20)을 참고할 것.

51) Ibid., p.128.

스토텔레스가 ‘통일성’ 앞에 ‘과도하게’(lian)이라는 제한성을 부여하는 단어를 덧붙이는 것(1261b10, 1263b7)을 고려한다면, 그가 통일성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시민의 수와 종류에 있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자족적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플라톤의 국가는 통일성을 과도하게 추구함으로써 수적인 단일성으로 소급될 위험과 국가의 자족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 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한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는 많은 수와 다양한 종류의 시민으로 우선적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이들 간의 친애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²⁾ 그도 국가의 통일성을 지지하지만 그 통일성은 질적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일치(homonôia)다, 이런 마음의 일치는 서로 간의 친애(philía)를 바탕으로 한다. 이것이 플라톤의 통일성과 관련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이다.

세 번째는 공유범위 논제다. 이 논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자 및 재산 공유의 계층을 혼동했다는 것이다. 즉 플라톤은 통치자에게만 공유를 부과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산자 계층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⁵³⁾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수호자들에게만 처자와 재산공유를 플라톤이 적용했다는 것을 그가 적어도 의식하고 있었을 가능성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⁵⁴⁾

(예문1) “플라톤 대화편 『국가』에서처럼, 시민들은 아내와 자식과 재산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1261a6-8)

(예문2) “그 밖에도 처자공유제는 치자들인 수호자들보다 피치자인 농민들에게 더 쓸모가 있는것 같다.”(1262a40-1262b1)

52) 본 논문 3장, 4-5쪽을 참고할 것.

53) Susemihl-Hicks(1894), p.231-232. Bornemann(1923), p.124-7. Bornemann은 『국가』 462a 이하를 상세히 분석한 후, 다음처럼 결론 내린다: “Trotz aller Mißverständlichkeiten ergibt sich also, daß Platon nur von den Wächtern gesprochen haben kann.”(p.127)

54) Saunders(1995), p.122. 하지만 그는 『국가』의 처자공유를 각 계층 내에서 공유로 해석하려 한다.

- (예문3) “국가 구성원은 대부분 수호자들이 아닌 일반 대중인데, 그들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농민(georgos)들도 수호자들처럼 재산을 공유하는가, 사유하는가? 그들의 처자들은 사유인가? 공유인가?”(1064a13-17)
- (원문4) “농민들에게도 처자와 재산 공유제가 똑같이 필요한지의 여부, 이와 관련된 다른 질문들, 이를테면 농민들의 국가 내에서의 위치에 관해 [...] 소크라테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1264a36-38)

예문 (1)에서 주어인 시민들의 범위가 어디까지는 정확히 한정할 수는 없지만, 이 문장이 일반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언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으로 읽을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시민들’ 안에 농민을 비롯한 생산자 계층이 제외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문 (2)는 처자와 재산 공유를 처자들인 수호자들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도 적용하면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공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만약 공유가 농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이미 간주했다면, 이런 언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과 (4)는 플라톤의 『국가』에서 농민들에게도 처자와 재산공유가 처자들에게서처럼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 불명확하게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공유를 농민들을 위시한 생산자 계층에게까지 확대해서 해석했다고 하는 주장은 힘을 잃는다.

또한 플라톤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의 통일성을 위해서 국가 전체가 전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처자와 재산공유가 처자인 수호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전체 시민들에게 적용되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자에게만 공유가 적용되고 농민들에게는 개별 소유가 적용되면, “한 국가 안에 서로 적대적인 두 국가가 생겨나게 되는”(1264a25)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플라톤의 제안은 수호자들을 점령군, 농민들과 나머지 다른 시민들을 점령된 국가의 피통치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⁵⁵⁾ 요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수호자에게만 공유제를 적

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공유범위에 관하여 플라톤의 불명확함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하는 것은 정당하다.⁵⁶⁾ 왜냐하면 플라톤은 『국가』 5권에서 최대선은 국가 내에서 모두가 최대한 공유하는 것으로 말한 다음, 그 이후에는 이것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공유의 대상 범위를 수호자로만 제한하기 때문이다. 『국가』 5권 462a-e와 464a에서 언급되는 시민들의 범위는 농민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지만, 464a 이후 수호자들 사이의 처자공유를 논의하면서 공유 대상범위는 급격하게 제한된다. 공유 대상범위의 이런 변화는 『국가』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를 읽으면서 이런 변화를 불명료하고 모순이 담긴 주장으로 이해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이제 좀 더 넓은 지평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2권에서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비판을 말해보자.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은 다른 주제와 비교했을 때 오랜 기간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학문적 등한시를 초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플라톤의 이 저작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이 심각한 무지와 오해로터 전적으로 연유한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⁵⁷⁾ 이것은 이 저작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을 플라톤 철학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환치하거나 대체하는 해석 태도에 근거한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확장 해석’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을 『국가』, 그것도 『국가』에서 논의된 폴리스의 통일성을 위한 여러 방책들에 논리적,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 시각으로서 고려하는 태도가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는 ‘제한적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제한적 해석의 관점 하에서, 플라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을 *koinônia*

55) 앞 각주 (43)을 참고할 것.

56) Stalley(1991), p.185-6; Schofield(2006), p.223.

57) Susemihl-Hicks(1894), Bornemann(1923), Napolitano Valditara(1985), Saunders(1992, 1995) 등의 연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의도를 ‘misrepresent’ 한다는 문장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문제를 통한 비판으로 국한시켜서 고찰할 때, 그의 비판들이 유의미해지고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해석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국가』를 비판하면서 도달했던 결론에 공감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그 결론은 바로 플라톤의 kallipolis는 kalos하기는 하지만 adynatos하고, 그 국가에서 인간적인 삶은 pampan adynatos하다는 것이다(1263b29).⁵⁸⁾

투 고 일: 2012. 08. 08.
 심사완료일: 2012. 08. 16.
 게재확정일: 2012. 08. 18.

송대현
 성균관대

58) 익명의 심사자들이 해주신 여러 조언은 필자의 실수와 오류를 수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분들의 조언 중에서 필자의 후속 연구를 위해서 특별히 참고할만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을 완결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비판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대하여 필자는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본 논문에 이를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지면의 과도한 양과 플라톤의 두 대화편 간의 관계, 다시 『정치학』 2권과 이 두 대화편의 관계를 필자가 아직 선명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필자가 현재 관심 갖고 검토하는 것은 Bodéus-Vegetti thesis(필자에 의한 명명)다. 이 thesis에 따르면, 플라톤이 아카데미아 내부에서 행해진 다양한 토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즉 『정치학』 2권의 비판을 인지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법률』에서 『국가』와는 다른 견해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플라톤은 『법률』의 저술을 『정치학』 2권의 비판에 대한 하나의 답변으로 생각했다는 교설이 성립한다.

참고문헌

I. 원 전

Aristophanes Comoediae, vol.2, ed. F.W. Hall and W.M. Geldart, Oxford. 1907.

Aristoteles' Politik, ed. A. Dreizehnter, München, 1970.

Aristotelis Ethica Nicomachea, ed. L. Bywater, Oxford, 1894.

Platonis Rempublicam, ed. S.R. Slings, Oxford, 2003.

II. 원전 번역

강상진, 김재홍, 이창우(번역),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이북스, 2006.

박종현(번역), 플라톤, 『국가』, 서광사, 1997(개정 증보판: 2005).

천병희(번역),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숲, 2009.

_____, 『여인들의 민회』, 아리스토파네스 희극전집 제2권, 숲, 2010.

Aubonnet, J., *Aristote. Politique*, vol.1, ed. and trans. Paris, 1960(rev. by M. -L. Desclos, 2002).

Barker, E., *Aristotle, Politics*, trans. and notes, Oxford/NewYork, 1946(rev. by R. Stalley, 1995).

Saunders, T., *Aristotle, Politics Books I & II*, trans. and commentary, Oxford, 1995.

Schütrumpf, E., *Aristoteles. Politik, Buch II & III*, trans. and commentary, Berlin, 1991.

Sinclair, T.A., *Aristotle, The Politics*, London, 1962(rev. by T. J. Saunders, 1992).

Pellegrin, P., *Aristote, Les politiques*, trans. and notes, Paris, 1990.

III. 주석과 연구

- 김남두, 「플라톤의 좋은 나라」, 『사회철학대계』 제1권, 차인석 외 지음, 민음사, 1993, 19-44.
- 김우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나타난 가정과 폴리스의 관계」, 『인문학연구』(계명대) 45집, 2011, 51-72.
- 김준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유론」, 『철학연구』(중앙대) 13집, 2001, 84-108.
- 이창우, 「인간의 행복-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권」, 『인간연구』(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 3집, 2002, 147-167.
- 커피드, 조지(김남두 번역), 『소피스트 운동』, 아카넷, 2003(English original, 1981).

- Barker, E., *The political thought of Plato and Aristotle*, London, 1906, p.208-524.
- Bertelli, L., *Historia e Methodos. Analisi critica e topica politica nel secondo libro della Politica di Aristotele*, Torino, 1977.
- Bodéüs, R., “Pourquoi Platon a-t-il composé les *Lois*?”, *Les études classiques* 53, 1985, 367-372.
- Bornemann, E., “Aristoteles Urteil der Platons politische Theorie”, *Philologus* 79, 1923, 70-111; 113-159; 234-257.
- Calabi, F., “Aristotele discute la *Repubblica*”, in *Platone, La Repubblica*, traduzione e commento a cura di Mario Vegetti, Napoli, 2000, 421-38.
- Canto-Sperber, M., “L’unité de l’Etat et les conditions du bonheur public (Platon, *République* V; Aristote, *Politique* II, in P. Aubenque et A. Tordesillas(eds.), *Aristote. Politique*, Paris, 1993, p. 49-71.
- Dawson, D., *Cities of the gods: communist utopias in Greek thought*, Oxford, 1992.
- Dittenberger, W., “Aristotelis politicorum libri octo cum vetusta trans. G. de Moerbeka rec. F. Susemihl”, *Göttingische gelehrte Anzeigen*,

- Stücke 43-44, 1874, 1376-1384.
- Dobbs, D., “Aristotle’s anticommunism”,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 1985, 29-46.
- Gallaher, “Aristotle’s peirastic treatment of the *Republic*”,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93, 2011, 1-23.
- Irwin, T., “Aristotle’s defense of private property”, in D. Keyt & F.O. Miller(eds.), *A companion to Aristotle’s Politics*, Oxford, 1991, p. 200-225.
- Mayhew, R., *Aristotle’s criticism of Plato’s Republic*, Lanham, 1997.
- Lanza, D., “La critica a Platone: due piani della *Politica*”, *Athenaeum* 49, 1971, 355-392.
- Miller, F.D., “Aristotle on property rights”, in J.P. Anton & A. Preus(eds.), *Essays in Ancient Greek Philosophy IV: Aristotle’s Ethics*, Albany N.Y., 1991, 227-247.
- Napolitano Valditarà, L., “La trattazione aristotelica della *Politeia* di Platone”, in E. Berti & L. Napolitano(ed.), *Etica, Politica, Retorica. Studi su Aristotele e la sua presenza nell’età moderna*, L’Aquila, 1989, 135-199.
- Newman, W.L. *The Politics of Aristotle*, with Introduction, two prefatory essays and notes critical and explanatory, vol. I-II, Oxford, 1887.
- Nussbaum, M.C., “Shame, separateness, and political unity : Aristotle’s criticism of Plato”, in A.O. Rorty(ed.), *Essays on Aristotle’s ethics*, Berkeley, 1980, p.395-435.
- Proclus, *Commentaire sur la République*, vol. 3, xvii dissertation, ed, trans., and notes, by Festugière, A.-J., Paris, 1970.
- _____, *Procli diadochi in Platonis rem publicam commentarii*, vol.2, ed. by W. Kroll, Leipzig, 1901.
- Salomon M., “La communauté des biens chez Aristote et Platon”,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et de sociologie juridique* 9,

1939, 177-95.

Stalley, R.F., "Aristotle's criticism of Plato's *Republic*", in D. Keyt & F.O. Miller(eds.), *A companion to Aristotle's Politics*, Oxford, 1991, p.182-199.

Saunders, T.J., *Aristotle, Politics Books I and II*, Oxford, 1995.

Schofield, M., *Plato: Political philosophy*, Oxford, 2006.

Schütrumpf, E., *Aristoteles Politik*, vol. 2, Berlin, 1991.

Simpson, P., "Aristotle's criticism of Socrates' communism of wives and children", *Apeiron* 24, 1991, 99-114.

Susemihl, F. & Hicks, R.D., *The Politics of Aristotle*, ed. and commentary, Books I-V, London, 1894.

Vegetti, M., "La critica aristotelica alla *Republica* di Platone nel secondo libro della *Politica*", in M. Migliori, *Gigantomachia: Convergenze edivergenze tra Platone e Aristotele*, Brescia, 2002, p.179-190.

Vilate, S., *Espace et temps. La cité aristotélicienne de la politique*, Paris, 1995.

Weil, R., *Aristote et l'histoire*, Paris, 1966.

ABSTRACT

Aristotle's Criticism of Plato's *Republic*

Song, Dae-Hyeon

It is the proposals of the Plato's *Republic* that Aristotle focuses on criticizing in his *Politics* II, chapters 2-6. His criticism consists of three subjects: unity, community of wives and children, community of property. First, Plato's extreme unity will abolish the *polis* itself, and diminish the self-sufficiency(*autarkeia*). Second, when we say that 'all shares wives and children', the term 'all' is used in a double sense, respectively distributive and collective. As Plato does not distinguish two semantic uses of it, he could not help making serious logical fallacy. And citizens take less care of sons who share with others than of sons who belong to themselves. Third, it is more desirable that ownership may be private but the produce in common use. For we feel, by nature, great pleasure in thinking of something as our own and from bestowing benefits on friends or associates. We therefore need private property in order to promote self-love and friendship, as opposed to Plato's ideal city.

We need discuss the arguments that Aristotle's criticism is not based on clear understandings of Plato's intentions.

(1) The community of wives and property is not regarded as central theme of Plato's *Republic*.

(2) Aristotle identifies the unity in Plato's *Republic* as 'one' in a numerical sense.

(3) The community in Plato's *Republic* is applied only to the guardians, and not to all citizens including farmers.

However, I believe that Aristotle's critique of Plato may be justified by giving the interpretation exclusively relative to community-topic. Aristotle does not intend to criticize Plato's entire philosophy, but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Plato's ideal proposal, 'community'. It is main aim that Aristotle severely criticizes the thesis of Plato's *Republic*.

Keywords: Aristotle, Plato, State(*polis*), community of wives and children, community of property, unity